

Session 5 John's Ministry and Jesus' Temptation (Lk. 3-4)

제 5 강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시험 (눅 3-4 장)

I. JOHN THE BAPTIST'S MINISTRY IN THE WILDERNESS (LK. 3:1-14)

광야에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 (눅 3:1-14)

A. John's public ministry (Lk. 3:1-2) most likely began in the summer AD 26.

요한의 사역은 대체적으로 AD 26 년 여름에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눅 3:1-2)

¹*Now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Pontius Pilate being governor of Judea, Herod being tetrarch of Galilee,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Iturea and the region of Trachonitis, and Lysanias tetrarch of Abilene, ²while Annas and Caiaphas were high priest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acharias in the wilderness. (Lk. 3:1-2)*

¹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²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눅 3:1-2)

1. **Tiberius:** History teaches us that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was either in AD 27 or AD 29. Some see the first year of Tiberius's reign as beginning in AD 12 when he became co-regent with Caesar Augustus, while others see it in AD 14 when Augustus died.

디베로: 역사에 따르면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는 AD 27 년 혹은 AD 29 년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디베로가 통치를 시작한 해를 그가 아우구스투스와 섭정을 하게 된 AD 12 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AD 14 년으로 보기도 한다.

2. **Pilate:** Pilate was governor (prefect) of Judea from AD 26-36 (Lk. 13:1; 23:1-56).

빌라도: 빌라도는 AD 26-35 년에 (장관으로) 유대를 다스렸다 (눅 13:1; 23:1-56).

3. **Herod Antipas:** ruled Galilee and Perea as tetrarch from 4 BC to AD 39. The title *tetrarch* means a "ruler of a fourth part." He was the son of Herod the Great and half-brother of Philip the tetrarch (a son of Herod the Great). Antipas imprisoned and executed John the Baptist.

헤롯 안디바: 그는 갈릴리와 페레아를 BC 4 년부터 AD 39 년까지 분봉왕으로 다스렸다. 분봉왕(tetrarch)의 원 뜻은 "1/4 의 통치자"이다. 그는 헤롯 대제의 아들이었으며, 분봉왕 빌립의 배다른 형제였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처형했다.

4. **Annas and Caiaphas:** Caiaphas the actual high priest (AD 18-37) ruled with his father-in-law Annas who had been the high priest (AD 6-15). "High priest" was a lifetime title.

안나스와 가야바: 가야바는 실제적인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장인인 안나스와 함께 다스렸다 (AD 18-37). 안나스 역시 대제사장이었다 (AD 6-15). "대 제사장"은 평생직이었다.

- B. John preached a baptism of repentance (Lk. 3:3-6). John described Jesus' ministry under the New Covenant—speaks of fullness and wholeness. A valley speaks of a low area and a mountain speaks of a high area. The gospel lifts us where we are lacking and lowers the mountains of pride or strongholds that dominate lives. There are many valley and mountains in individual lives, in society, and in creation.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눅 3:3-6). 요한은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즉 충만함과 온전해짐에 대해 설명했다. 골짜기는 낮은 지역을, 산은 높은 지역을 말한다. 복음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교만이나 우리 삶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의 산을 낮아지게 한다. 각 개인의 삶과 사회, 창조물에는 많은 골짜기와 산들이 존재한다.

³And he went into all the region around the Jordan,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⁴as it is written in...Isaiah the prophet, saying: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⁵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brought low...⁶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Lk. 3:3-6)

³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⁵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 ⁶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눅 3:3-6)

1. **Baptism of repentance:** John's message was in agreement with the gospel that Jesus and the early church proclaimed. Faith and repentance are two aspects of committing our life to Jesus.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that eventually leads to a change of behavior. Baptism is the outward sign of inward repentance. A change of perspective transforms our approach to life.

회개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과 초대 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데에 필요한 2 가지이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며 이는 결국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세례는 내적인 회개에 대한 외적인 표시였다. 관점의 변화는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킨다.

2. **Remission of sins:** Forgiveness is a most amazing gift, giving us a new beginning with confidence before God.

죄사함: 죄사함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며, 이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3.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John's ministry consisted of preparing the Jews by getting their hearts right with God so when Messiah appeared they would be able to recognize Him.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준비하여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II. THE PREACHING OF JOHN: THE CALL TO REPENTANCE (LK. 3:7-14)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의 부르심 (눅 3:7-14)

- A. Many in Israel trusted in their religious heritage, saying, "Abraham is our father." Today, some trust in their church background or their parent's faith instead of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유업을 의지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오늘날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세워나기보다, 자신의 교회 배경이나 부모의 믿음에 의지하고 있다.

⁸*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and do not begin to say to yourselves, “We have Abraham as our father”...¹⁰So the people asked him, saying, “What shall we do then?”¹¹He answered and said to them, “He who has two tunics, let him give to him who has none; and he who has food, let him do likewise.”¹²Then tax collectors...said to him, “Teacher, what shall we do?”¹³And he said to them, “Collect no more than what is appointed for you.”¹⁴Likewise the soldiers asked him, saying, “And what shall we do?” So he said to them, “Do not intimidate anyone or accuse falsely, and be content with your wages.” (Lk. 3:7-14)*

...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¹⁰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¹¹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¹²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¹³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¹⁴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눅 3:7-14)

- B. **Repentance:**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that eventually leads to a change of behavior. Outward change is the evidence of repentance. Sincere repentance eventually results a changed life.

회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며 이는 결국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회개의 증거이다. 진실한 회개는 종국적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 C. True faith involves social concern for the needy. John called them to generously share their possessions with the needy. John did not call them to follow his desert lifestyle.

참된 믿음은 궁핍한 자들을 향한 사회적인 관심의 영역도 포함한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궁핍한 이들과 후하게 나눌 것을 말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의 광야의 삶을 따라 살라고 말하지 않았다.

III. THE PREACHING OF JOHN: THE SUPERIORITY OF JESUS (LK. 3:15-20)

세례 요한의 설교: 더 위대하신 예수님 (눅 3:15-20)

- A. John spoke of Jesus as the coming Messiah (Mt. 3:11-12; Mk. 1:7-8; Lk. 3:15-18).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라고 말했다 (마 3:11-12; 막 1:7-8; 눅 3:15-18).

¹⁶*John answered..., “I indeed baptize you with water; but One mightier than I is coming, whose sandal strap I am not worthy to loose.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¹⁷*His winnowing fan is in His hand, and He will thoroughly clean out His threshing floor and gather the wheat into His barn; but the chaff He will burn with unquenchable fire.” (Lk. 3:16-17)**

¹⁶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¹⁷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눅 3:16-17)

- B.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Fire refers to a blessing of the purifying work of the Spirit and of His judgment on rebellion. This gives revelation into who God is.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은 성령님의 정결케 하시는 일하심과,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

- C. **Winnowing fork:** A forklike shovel was used to throw grain and chaff (husk and straw) into the air. The wind carried the chaff away from the heavier grain which then fell to the ground.

키: 곡식을 골라내는 데에 쓰인 이 도구는 곡식과 겨(겉 껍질, 지푸라기)를 공중에 날리는데 사용되었다. 무거운 곡식은 다시 내려오고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려갔다.

- D. **Many other words** (3:18): John exhorted the people and preached the good news to them. The message of repentance is “good news,” for it means that people can be forgiven and know God. Preaching combines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with exposing sin that hinders the kingdom.

그 밖에 여러 가지로 (3:18):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좋은 소식을 전파했다. 회개의 메시지는 “좋은 소식(복음)”이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그분의 나라를 방해하는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도 한다.

- E. In past generations, some preachers only emphasized sin and judgment without the good news. Today the problem is opposite—some only emphasize good news without calling for repentance.

과거 세대들에서 어떤 설교자들은 죄와 심판의 부분만을 강조하고 복음은 강조하지 않았다. 오늘날은 정반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 말하고,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 F. John rebuked Herod Antipas for his sin. This led to John's imprisonment and execution (9:7-20). John's ministry lasted for a year or so, perhaps 18 months (26-27 AD), overlapping with Jesus for six months or so. It is estimated that he was in prison for about one year being executed in 29 AD.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죄를 꾸짖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은 투옥되고 처형을 당했다 (9:7-20).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일년쯤, 아마도 18개월 정도 지속되었으며 (AD 26-27년), 예수님의 사역과는 약 6개월 정도 겹치는 기간이 있었다. 세례 요한은 그 후 대략 1년 정도 투옥되었다가 AD 29년에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¹⁹But **Herod the tetrarch, being rebuked by him concerning Herodias, his brother Philip's wife, and for all the evils** ²⁰...above all, that he **shut John up in prison.** (Lk. 3:19-20)

¹⁹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²⁰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눅 3:19-20)

IV. JESUS BAPTIZED BY JOHN IN PEREA (LK. 3:21-22)

예수님이 페레아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다 (눅 3:21-22)

- A. Jesus was baptized by John (Mt. 3:13-17; Mk. 1:9-11; Lk. 3:21-22) probably in autumn AD 26. At His baptism, Jesus received the anointing of the Spirit and God's audible affirmation over His life. With this supernatural, divine endorsement, Jesus was ready to begin His ministry.

예수님께서 AD 26 년 가을쯤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 (마 3:13-17; 막 1:9-11; 눅 3:21-22).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부음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확증을 경험했다. 이 초자연적인 하늘의 확증을 통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었다.

²¹ *...it came to pass that **Jesus also was baptized**; and while He prayed, the heaven was opened. ²²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in bodily form like a dove upon Him**,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which said, **“You are My beloved Son; in You I am well pleased.”** (Lk. 3:21-22)*

²¹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²²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1-22)

- B. **My Beloved Son:** The Father summed Jesus' childhood and young adult years with one statement. This is the greatest insight we have into 30 years of Jesus' life about which we know very little.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셨다. 이는 우리가 아주 조금밖에 알고 있지 못하는 예수님의 30 년 간의 삶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준다.

- C.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Jesus, as a Man, was anointed for ministry.

성령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인자이신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기름부음을 받았다.

- D. **Like a dove:** This seems to have been a theophany—God appearing in “bodily form.”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는 하나님이 “형체를 입고” 나타나셨던 것으로 보인다.

- E. John agreed to baptize Jesus after Jesus declared it was necessary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을 선포하신 이후에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다.

¹⁴ *John tried to prevent Him, saying,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and are You coming to me?” ¹⁵But Jesus answered...“Permit it...for thus **it is fitting for u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Mt. 3:14-15)*

¹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¹⁵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 3:14-15)

1. Jesus' baptism was an acceptance of His Messianic responsibilities—He was making a complete break with His past life to fully embrace a new life as Messiah. The baptism was a type of consecration to God's priestly call over His life. The priests under Moses were consecrated by being washing with water (Ex. 29:4; Lev. 8:6).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책임을 받아들이신 것이었다. 그분은 과거의 삶과 완전히 단절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부르심에 대해 그분의 삶을 성별하는 것과 같았다. 모세와 함께했던 제사장들은 물로 씻어 성별케 되는 과정을 거쳤다 (출 29:4; 레 8:6).

2. Jesus submitted to baptism as a symbolic anticipation of his death (Lk 12:50; Mk. 10:38-39).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눅 12:50; 막 10:38-39).

3. Jesus' baptism paralleled Israel crossing the Red Sea after the Exodus. Jesus crossed the Jordan to enter the wilderness to be tested; Israel crossed the Red Sea to enter the wilderness to be tested. Jesus is our greater Moses leading God's people into the promised land.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홍해를 건넌 것과 대비를 이룬다. 예수님께서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간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4. By His baptism Jesus endorsed John's ministry as being approved by God.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임을 보증하셨다.

5. In baptism Jesus identified with those of Israel who were expressing their obedience to God.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순종을 드리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V. JESUS' TEMPTATION (LK. 4:1-13)

예수님의 시험 (눅 4:1-13)

- A. Jesus'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Mt. 4:1-11; Mk. 1:12-13; Lk. 4:1-13) in autumn AD 26.

AD 26 년 가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마 4:1-11; 막 1:12-13; 눅 4:1-13).

¹Then Jesus,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²being tempted for forty days by the devil. And in those days He ate nothing, and afterward, when they had ended, He was hungry. (Lk. 4:1-2)

¹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²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눅 4:1-2)

- B. **Led by the Spirit:** This conflict was initiated by the Spirit, not Satan. God tests, but does not tempt anyone (James 1:3; cf. Ex. 16:4; 20:20; Deut. 8:2; 13:2; Judg. 2:22; 3:4; 2 Chr. 32:31).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사단이 아닌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지만, 어떤 이도 미혹하지 않으신다 (약 1:3; 비교. 출 16:4; 20:20; 신 8:2; 13:2; 삿 2:22; 3:4; 대하 32:31). (*역자주: 여기서 '사단의 시험'보다는 '사단의 미혹'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성경 번역과의 일관성을 위해 '사단의 시험'이라고 표기함)

- C. Jesus spoke God's Word to Satan— All three scriptural quotations come from Deuteronomy when Israel was being tested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Deut. 8:3; 6:13, 16).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여기서 인용하신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 년간 시험을 받을 때의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왔다 (신 8:3; 6:13, 16).

1. Jesus was victorious in the wilderness in contrast to the failures of Adam in the garden of Eden and Israel in the wilderness. All three— Jesus, Adam, and Israel—were referred to as “God’s son” (Ex. 4:22-23; Hos. 11:1; Lk. 3:23, 38).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승리하셨고,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예수님과 아담,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 (출 4:22-23; 호 11:1; 눅 3:23, 38).

2. Jesus answered the temptation by being armed with the “sword of the Spirit” (Eph. 6:17).

예수님께서서는 시험에 대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셔서 응답하셨다 (엡 6:17).

- D. The purpose of Satan’s temptation was to get Jesus to do something independent of the Father. By doing this, Jesus would be disqualified to save us as our human high priest (Heb. 2:17).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 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잃게 된다 (히 2:17).

¹⁹ *Jesus answered... “Most assuredly, I say to you, the Son can do nothing of Himself, but what He sees the Father do; for whatever He does, the Son also does in like manner.” (Jn. 5:19)*

¹⁹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5:19)

- E. The three temptations represent the three categories of temptations that all people face (1 Jn. 2:16):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sensuality, greed, and pride.

이 세 개의 시험들은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세 가지 시험들이다 (요일 2:16):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 쾌락, 탐욕, 교만

¹⁶ *For all that is in the world—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1 Jn. 2:16)*

¹⁶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 2:16)

1. **Lust of flesh:** pleasure without reference to the will of God—“sensuality”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즐거움 – “쾌락”

2. **Lust of eyes:** possessions without reference to the will of God—“greed”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소유 – “탐욕”

3. **Pride of life:** position without reference to the will of God—“pride”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위치 – “교만”

- F. Sensuality, greed, and pride were the three sins that Adam and Eve were tempted with in the garden (Gen 3:5-6).

쾌락, 탐욕, 교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세 가지 죄들이었다 (창 3:5-6).

⁵“God knows that in the day you eat of it...you will be like God [pride]...”⁶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pleasurable—lust of the flesh], that it was pleasant to the eyes [lust of eyes]...she took of its fruit and ate. She also gave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Gen. 3:5-6)

⁵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교만] ... ⁶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5-6)

- G. **Principle:** Although Jesus was never less than God, He lived on the earth as though He was never more than a man. He always possessed the fullness of deity, yet lived on earth dependent on God by the activity of the Spirit as we are. He had to live totally as a man to be a sacrifice for man's sin.

원리: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보다 못하신 적도 없으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 인간 이상의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항상 신성을 충만히 소유하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사셨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사셔야만 했다.

- H. Jesus stood in the same position that the first Adam facing the same three temptations. Everything Jesus did, He did as a man. He demonstrated how people are to relate to the Father.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아담이 경험했던 세 가지 미혹을 동일하게 직면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져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 I. **Illustration:** A laptop can be powered by a battery or a plug-in. Jesus had the batteries—His deity; but He always lived by the plug in—the anointing on the Spirit on Him. He never used the batteries.

예: 노트북 컴퓨터는 배터리나 플러그를 꼽을 때에 작동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성이라는 배터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언제나 플러그를 꼽은 상태로 사셨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사셨다. 그분은 절대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VI. THREE TEMPTATIONS

세 가지 시험

- A. **Stone to bread:** The first temptation was to gratify His physical desires without regard to God's will or trusting God. Sensuality is not just sexual; it is physical indulgence without reference to the Spirit.

돌을 떡으로: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부분이었다. 쾌락은 성적인 부분만을 말하지 않으며, 이는 성령님과 관계없이 육체적인 탐닉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³And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command this stone to become bread.”⁴But Jesus answered him, saying,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promise] of God.’” (Lk.4:3-4)

³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KJV 흠정역,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약속)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눅 4:3-4)

1. The Lord supernaturally provided food to Israel in the wilderness giving them manna. Jesus was easily able to multiply bread for others (Lk. 9:10-17).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며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공급하셨다.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손 쉽게 음식을 배가시킬 능력이 있었다 (눅 9:10-17).

2. Israel in the wilderness was required to trust God for their food; so must Jesus trust His Father in the wilderness (Deut. 8:1-3).

광야의 이스라엘은 음식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했다 (신 8:1-3).

3. Both Jesus, and the Israelites under Moses were to believe that God's word was reliable. God had revealed a plan for both that assured them that they would not die in the wilderness.

예수님과 모세의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함을 신뢰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광야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보이셨다.

4. God is our source—obeying God's will requires waiting on God's timing for His provision.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원이 되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 B. **Glory of all the kingdoms:** The second temptation was combination of pride and lust of the eyes. Satan showed Jesus as all the glory or splendor (NIV) of the nations— without embracing the cross (24:26). Like every believer, Jesus was faced with the need and choice to take up the cross (9:23).

천하 만국의 영광: 두 번째 시험은 자만과 안목의 정욕이 혼합된 것이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다 (24:26). 모든 성도가 그렇듯이, 예수님께서서는 과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지의 상황에 직면하셨다 (9:23).

⁵*The devil led Him up to a high place and showed Him in an instant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⁶And he said to Him, "I will give you all their authority and splendor; it has been given to me, and I can give it to anyone I want to. ⁷If you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Lk. 4:5-6, NIV)*

⁵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⁶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눅 4:5-6)

1. Authority was handed to devil by the first Adam and won back by the second Adam. God gave dominion or authority over the earth to Adam as a representative of the human race.

권위, 권세는 첫째 아담으로 의해 사단에게 넘겨준 바 되었으며, 둘째 아담이 되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에게 온 땅에 대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

²⁶*"Let Us make man in Our image...let them have dominion...over all the earth..." (Gen. 1:26)*

²⁶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 1:26)

2. In sinning, Adam forfeited his authority to Satan (Gen. 3; Lk. 4:6). Jesus came to win back the dominion originally given to humans. Jesus, as the last Adam, won the rights to the dominion of the earth.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겼다 (창 3 장; 눅 4:6).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애초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권세를 되찾으셨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릴 권리를 되찾아오셨다.

⁴*Whose minds the god of this age (Satan) has blinded, who do not believe. (2 Cor. 4:4)*

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후 4:4)

- C. Jesus rebuked Satan and spoke the Word to him .

예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⁸*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Get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You shall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Him only you shall serve." (Lk. 4:8)*

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눅 4:8)

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KJV 흠정역, 눅 4:8)

- D. **Throw Yourself down:** The third temptation was related to acting in pride. This temptation was to get Jesus to *test God* by His insistence on when and how God should fulfill His promises to Him. In this case, it was related to one of God's promises of protection over His life.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자만히 행하는 부분이었다. 이 시험(미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셔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이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 중의 하나와 연관되어 있었다.

⁹*Then he brought Him to Jerusalem, set Him on the pinnacle of the temple, and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¹⁰For it is written: 'He sha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you, to keep you,'¹¹and, 'In their hands they shall bear you up, lest you dash your foot against a stone.'"¹²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It has been said, 'You shall not tempt the Lord your God.'" (Lk. 4:9-12)*

⁹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¹⁰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라 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¹¹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¹²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눅 4:9-12)

- E. Some suggest that people could see Jesus, and thus the temptation was to prove that He could do miracles anytime He wanted—miracles such as not being hurt after falling from the pinnacle of temple. Luke did not mention an audience, so one cannot be dogmatic on this.

어떤 이들은 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분이 언제든 원할 때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즉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누가 복음은 말씀에서 지켜보는 사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주장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 F. Jesus entrusted Himself to God's method and timing—to protect and provide for Him (1 Pet. 2:2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에 대한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과 타이밍에 맡겨드렸다. (벧전 2:23).

²³ *...who, when He was reviled, did not revile in return; when He suffered, He did not threaten, but commit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righteously... (1 Pet. 2:23)*

²³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벧전 2:23)

- G. Israel tested God in the wilderness by seeking to force His hand (Ex. 17:7). Pride is expressed when we become offended when God does not act on our behalf on “our terms”— in our time and way.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분이 일하실 것을 강요했다 (출 17:7). 교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한 방법”, 즉 우리가 정한 때와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때 실족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 H. Satan quoted the Scriptures to make his case to Jesus (Ps 91:11-12); Jesus instantly saw how Satan twisted the Scripture. He responded by speaking the Word to Satan (Deut. 6:16).

사단은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추궁했다 (시 91:11-12).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오용했는지 즉시 알아차리셨다. 그분은 말씀으로 사단에게 응답하셨다 (신 6:16).

¹¹ *For He shall give His angels charge over you, to keep you in all your ways. ¹²In their hands they shall bear you up, lest you dash your foot against a stone. (Ps. 91:11-12)*

¹¹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¹²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 91:11-12)

¹⁶ You shall not tempt the Lord your God as you tempted Him in Massah. (Deut. 6:16)

¹⁶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 6:16)

- I. The next opportune time in Scripture for Satan to tempt Jesus seems to be when Peter sought to talk Jesus out of dying on the cross (Mt. 16:21-23). Satan entered Judas (22:3), shifted Peter (22:31), and moved in great darkness related to the events related to Jesus dying on the cross (Lk. 22:53).

다음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죽지 말 것을 설득하는 순간이다 (마 16:21-23). 사단은 유다에게 들어갔으며 (눅 22:3),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 하고 (눅 22:31),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과 연관된 큰 어두움의 사건에 개입했다 (눅 22:53).

¹³ *When the devil had ended every temptation, he departed from Him until an opportune time. (Lk. 4:13)*

¹³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눅 4:13)